

(Judges 14:1-20; Matthew 26:31-35)

The story of Samson is famous for its potent mix of sex, violence, death and power – exactly what we would expect in a contemporary action movie like James Bond. But if we read the story as part of the whole narrative of the book of Judges, we will find it to be perplexing and probably disturbing. As Israel’s spiritual condition grows worse and worse, the scene seems to be set for a great judge, perhaps the greatest of all. And chapter 13, with its announcement of the miraculous birth of a boy who would “begin the deliverance of Israel from the hands of the Philistines” (13:5), prepares us for a wonderful, powerful deliverer. Instead, we find by far the most flawed character in the book of Judges: a violent, impulsive, sexually addicted, emotionally immature and selfish man. Most disturbing of all, the Spirit of God seems to anoint and use his fits of sulking, pride and temper.

삼손의 이야기는 섹스, 폭력, 죽음과 권력의 강력한 조합으로 유명합니다-바로 제임스 본드와 같은 현대 액션 영화에서 불법한 것들이지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사사기 전체내용의 일부로서 읽으면, 우리는 이 이야기가 아마 당혹스럽고 혼란스럽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면서, 이 장면은 아마 그중의 가장 훌륭한 사사를 위해 연출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할 것"이라는 소년의 기적적인 탄생의 발표와 함께, 우리는 훌륭하고 강력한 구원자가 나올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대신, 우리는 사사기에서 지금까지 가장 결함이 있는: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성적으로 중독된,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그리고 이기적인 인물을 발견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혼란스러운 점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의 뽀로통함, 자부심, 성질을 사용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As we come to chapter 14, happily, we have the reader’s advantage – we are in on all the 4 secrets floating around the chapter: the secret of God’s purpose, the secret of the slaying of the lion, the secret of the honey and the secret of the riddle.

14 장으로 넘어오면서, 다행히도, 우리는 독자의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장에 떠다니는 모든 4 가지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의 섭리, 사자의 사냥의 섭리, 꿀의 섭리 그리고 수수께끼의 섭리를 알게 됩니다.

1. The Secret of God’s Purpose (vv.1-4)

Samson is now a grown man, stirred by the Spirit of the Lord (13:25). But at the start of chapter 14 – and throughout the rest of his life – he will be stirred by a much more worldly impulse. Samson had been to Timnah. He had seen a girl. Literally, the Hebrew says, “A woman I have seen in Timnah” – the emphasis is on “woman”. Samson was determined. His father must arrange for the marriage. Father and mother were shattered. They had lived in the hope of his birth – and now this. They explode, “Isn’t there any girl in all Israel who could please you, that you have to go off to Philistia to find a wife? Samson, that girl’s a pagan!” Samson looks Manoah in the eye, and his words come out deliberately through clenched teeth: “Get her for me”. His reason? “She’s the right one for me” (literally, “For she is right in my eyes”.) You can imagine the grief and despair Samson’s parents were feeling that evening. But the writer provides an aside in verse 4: “His parents did not know that this was from the Lord, who was seeking an occasion to confront the Philistines”. God is after an opportunity for striking the Philistines – he seeks grounds for instigating a quarrel with them.

1. 하나님의 목적의 섭리(vv.1-4)

삼손은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와 성령이 감동된 사람입니다(13:25). 그러나 14 장 초반부에서- 그리고 그의 남은 생을 통틀어- 그는 세속에 더욱 더 휩쓸립니다. 삼손은 딘나에 내려갔습니다. 그는 한 소녀를 보았습니다. 히브리 작가가 하는 말 그대로, “내가 딘나에서 본 한 여성” – “여성”에 강조가 돼 있습니다. 삼손은 결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혼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의 부모는 애가 탔습니다. 그들은 삼손이 태어나길 바라는 소망가운데 살았었습니다. – 그리고 지금 이런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친척이나 동족가운데 여자가 없어서 네가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라고 그들은 완강히 반대하였습니다. 삼손이 떨리는 입술로 마노아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그 여자를 데려오십시오. 그녀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여자입니다.”(말 그대로 “그녀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여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삼손의

(Judges 14:1-20; Matthew 26:31-35)

부모가 그날 저녁 느꼈을 슬픔과 절망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4 절에 나와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을 치실 기회를 노립니다 - 그들과 싸움을 부추길 원인을 찾습니다.

Here would have been real comfort for Samson’s parents had they known. They didn’t realize, they couldn’t see that God was “seeking an occasion to confront the Philistines”. This does not mean that they were wrong to object to Samson’s desires and action. Nor does it mean that Samson’s desires were virtuous or that his pig-headedness was right. What it means is that neither Samson’s foolishness nor his stubbornness was going to prevent God from accomplishing his purpose. God can and will use the sinfulness or stupidity of his servants as the camouflage for bringing his secret will to pass - to achieve his secret purpose.

이러한 계획을 삼손의 부모가 알았다면 그들에게 참 안심이 됐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칠 기회를 노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열망과 행동에 그들이 반대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삼손의 열망이 도덕적이었거나 그의 고집이 합당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어리석음이나 고집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려는 것을 막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죄 많음과 어리석음을 가려가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럴 것 입니다.

Ehud Avriel took 3 months (1947-48) looking for a ship to transport some of his purchases to Palestine. At last he was able to hire the “Nora”, a tramp steamer. To all eyes his shipment consisted of Italian onions - 600 tons of them. British customs agents would not likely sniff around that cargo for too long! Which was the very idea - 600 tons of Italian onions covered the real cargo, a shipment of Czech rifles Avriel had purchased for the Haganah, Israel’s army.

에후드 에브리엘(1947-48)은 그의 구매품의 일부를 팔레스타인으로 운반해 줄 배를 찾는데 3 개월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노라”라는 부정기 증기선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그의 증기선은 600 톤의 이탈리아 양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국 세관들은 그의 화물을 오래 냄새맡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600 톤의 양파로 가득 찬 화물, 사실 그 안에는 이스라엘 군 하가나를 위해 에브리엘이 구입한 체코 소총의 선적-바로 이것이었습니다.

This verse 4 can and should hold out some hope for us as God’s people. Frequently, all we can see are the onions of a situation. Our sin or the smell of disappointment or failure seems to dominate the scene. But perhaps that is only the cover for God’s secret work. Perhaps our greatest comfort is hidden in what we don’t know or can’t see! Perhaps it is “from the Lord”, who has his own saving design to work either through or in spite of our sin or disappointment or failure. Many Christian parents have stood in the sandals of Manoah and his wife. They have, though realizing their own sinful inadequacies, faithfully taught, prayed for, disciplined, and loved a son or a daughter only to see that child wilfully turn from the way of the Lord. How devastating! Yet no one should forget verse 4: “His parents did not know that this was from the Lord”. What we don’t know may yet prove to be our deepest comfort.

이 4 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의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한 상황의 양파들과 같은 껍데기 뿐입니다. 우리의 죄 또는 실망과 실패의 냄새가 상황을 지배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아마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겉표면 뿐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나, 우리의 죄나 좌절, 실패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기독교 부모들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같은 처지에 있어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도, 믿음으로 가르쳤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고, 훈련했고, 사랑했지만 그들의 자녀들이 주님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멀어지는 것만을 봅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4 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부모는 이 일이

(Judges 14:1-20; Matthew 26:31-35)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위로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2. The Sign of God’s Strength (vv.5-9)

Next we go by the vineyards of Timnah and see Samson deal with the threat of a young lion. Verse 6 clearly indicates that Samson was alone when the lion attacked. God clearly protects his servant here, for Samson’s life was obviously in danger. Is this episode merely included so that we will have the needed background for Samson’s later riddle? No, the incident is important in its own right. The lion comes roaring toward Samson and the Spirit comes rushing upon him, and, in the Spirit’s strength, the lion could just as well have been a young goat, so easily did Samson tear it apart. Samson’s strength comes from the Spirit of God. The mangled lion is meant as God’s sign to Samson. It shows him what God can and will do through him. It should show him that the God who makes him able to tear up lions can also empower him to terrorize Philistines.

2. 하나님의 권능의 신호(5-9 절)

다음으로 우리는 딤나의 포도원에 이르러 삼손이 어린 사자의 위협과 맞닥뜨리는 것을 봅니다. 어린 사자가 공격 했을 때 삼손이 혼자 있었다는 것을 6 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삼손의 목숨이 위협에 처했고, 여기서 하나님이 그의 종을 명확히 보호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단지 나중에 삼손의 수수께끼를 위해 필요한 뒷받침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이 장면은 이 자체로써 아주 중요합니다. 어린 사자는 으르렁 대며 삼손을 향해 왔고, 여호와와 신에게 크게 감동된 삼손은 어린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아주 쉽게 찢어버렸습니다. 삼손의 힘은 여호와와 신으로 부터 왔습니다. 삼손에게 난도질 된 사자는 하나님의 신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고, 삼손을 통해 무엇을 해내실 지를 그에게 보여줍니다. 삼손이 사자를 찢을 수 있게하시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공포에 떨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We must not ignore such previews. David argued that if God made him able to protect his father’s sheep from attacks by lions and bears, he would also have the courage and skill to defeat the great warrior of the Philistines, Goliath (1 Samuel 17:34-37). Mark suggests in his gospel that if the disciples had understood Jesus’ feeding of the five thousand they would not have been astounded at his walking on the water of the lake (Mark 6:51-52). We need to notice this pattern in God’s ways. He will, by some smaller instance of deliverance or provision, show you just how adequate or sufficient he is so that you will be encouraged and prepared to rely on him in future and possibly more demanding circumstances.

우리는 이러한 예견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만약 사자와 곰의 공격으로부터 그의 아버지의 양들을 보호하게 하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위대한 전사를 물리 칠 수 있는 용기와 기술을 주실지를 논했습니다(사무엘상 17:34-37).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해했다면, 물위를 걷는 예수님에 놀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제시합니다(마가복음 6:51-52).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나는 이런 형태들을 주의깊게 보아야 합니다. 몇몇 작은 구원의 경우나 계획에 의해, 하나님은 여러분이 위로받고 앞으로 또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에 그분을 의지하게끔 그분이 얼마나 적절하고 충분한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3. The Weakness of the Lord’s Servant (vv.10-18)

In vv.10-18 the weakness of the Lord’s servant, his chosen deliverer, appears. Here is a hint of what is to come. We have just seen his strength in vv.5-9 and, immediately we are faced with his weakness. Samson as bridegroom held a special feast in Timnah which lasted for 7 days. Of course, we already know about the lion and the bees and the honey – and so we can enjoy the Philistines’ sweating on losing the bet. No wonder we enjoy the story – we are in on the secret.

3. 하나님의 종의 연약함(10-18 절)

(Judges 14:1-20; Matthew 26:31-35)

그의 선택받은 구원자인 하나님의 종의 연약함을 10-18 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떤일이 펼쳐질 지에 대한 하나의 단서입니다. 신랑이 된 삼손은 딘나에서 7 일동안 이어진 특별한 잔치를 벌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자와 벌과 꿀에 대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때문에 우리는 블레셋인들이 땀흘려 내기에 지는 것을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우리가 그분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Since the Philistines have generously provided 30 companions for the groom (probably charged with protecting the wedding party against gate-crashers), Samson proposes some additional entertainment. “Let me tell you a riddle” (v.12a) and let us make a bet. In our day and age, the equivalent stakes would be 30 sets of underwear and 30 new suits. If the Philistines win, each of them gets a new outfit but, if they lose, Samson has an instant wardrobe of clothes. The Philistines are game and Samson announces his riddle: “Out of the eater, something to eat; out of the strong, something sweet” (v.14) For a while the 30 companions don’t mind playing with the challenge of the riddle but, after 3 days of futility, they become frustrated, edgy and irritable. And so, on the fourth day, “they said to Samson’s wife, ‘Coax your husband into explaining the riddle for us, or we will burn you and your father’s household to death. Did you invite us here to rob us?’ ” (v.15). There is not a little pressure on the bride! She turns on the waterworks and the “you-don’t-love me” act over several days until finally, on the seventh day, Samson finally caved in under her desperate cajoling. As expected, his telling her is quickly followed by her “explaining the riddle” to her fellow Philistines. Just before the deadline, they go to Samson and reveal the secret of the riddle: “What is sweeter than honey? What is stronger than a lion?” (v.18a) But Samson is no fool, he knows that his wife must have spilled the beans. She is the talking heifer! Since heifers were not used for ploughing, Samson is accusing the 30 companions of unfairness (v.18b).

블레셋인들은 30 명을 데려다가 너그럽게 신랑에게 줍니다(아마 입구...?) 삼손은 여분의 오락거리를 준비합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내겠다”(12 절) 그리고 내기를 하자. 그 당시 내기에 건돈은 오늘날의 30 벌의 속옷과 30 벌의 양복과 같습니다. 블레셋인들이 이긴다면, 한명당 새 옷을 하나씩 받을테고, 진다면 삼손이 모든 옷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내기에 임했고 삼손은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14 절) 며칠동안 그들은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만, 3 일이 지나고 그들은 허탈하고,좌절스럽고 초조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4 일째 되는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불러 말했습니다.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꺾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15 절). 신부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줬습니다! 그녀는 며칠동안 울면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식의 연기를 했고, 마침내 7 일째 되는날 삼손은 그녀의 연기에 속아들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녀에게 알려준 답은 재빠르게 그녀의 동료 블레셋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거의 끝날때 쯤, 그들은 삼손에게 가서 수수께끼의 비밀을 풀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18 절) 그러나 삼손은 바보가 아니어서 그의 아내가 분명 그들에게 힌트를 줬을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바로 말하는 암송아지인 것입니다! 암송아지는 밭가는데 쓰이지 않기 때문에, 삼손은 30 명의 동무들의 정당하지 못함을 비난합니다.

Since many of us have heard Samson’s whole story before, we cannot help seeing the present episode as a foreshadowing of Samson’s telling a far more sacred secret to Delilah in chapter 16. The occasion of his failure was the same in both cases: “she pressured him” (14:17, 16:16). Already in chapter 14 we see a worrying weakness in the Lord’s strong servant – he cannot think rationally and say “No” when under pressure from a beautiful woman. The point should not be lost on any of us, as disciples of our Lord Jesus. Awareness of our weakness is the beginning of safety. Peter, like Samson, discovered that the hard way. He often spoke out rashly before he thought carefully – “Even if all fall away on account of you, I never will” (Matthew 26:33). That very night, before the rooster crowed, he disowned Christ three times. If we know our weakness, whether it be pornography, over-indulgence in food or shopping or addiction to social media or whatever it may be, we are forewarned and can take action to keep out of harm’s way.

(Judges 14:1-20; Matthew 26:31-35)

삼손의 전체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장면을 삼손이 16 장에서 들릴라에게 훨씬 더 중요한 비밀을 털어놓는 예시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실패의 이유는 두 경우 모두 같았습니다: “그녀가 그를 강박하여” (14:17)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16:16). 우리는 이미 주님의 굳센 종의 안타까운 약점을 14 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부터 오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거절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 포인트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삼손과 같이, 베드로도 어려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종종 주의깊게 생각하기 전에 분별없이 말을 하곤 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닭이 울기 전, 그는 그리스도를 세번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면, 그것이 포르노가 됐던, 과식, 과소비 또는 소셜 미디어에 과하게 중독됐던, 그게 무엇이 됐건 간에, 우리는 미리 경고받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The Beginning of God's Deliverance (vv.19-20)

The final verses of the chapter describe the beginning of God's deliverance. Samson goes down to Ashkelon, one of the five principal cities of the Philistines and in his anger strikes down 30 Philistine men stripped them of their clothes and goes and gives them to those men who had explained the riddle. He strikes down the 30 Philistines, not from a desire to save Israel, but to get even and pay his debts. But, in all this, God is at work. The text insists that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him in power “and so he” went down to Ashkelon (and) struck down thirty men”. The Spirit who previously gave him power to tear up lions now gives him power to strike down Philistines. Here was the occasion the Lord was seeking in v.4. Here is the climax of the story, for even God's secret is coming into the open. What we are dealing with is not Samson's temper but the Spirit's power. God is giving Samson superhuman strength – the one thing he needs (other than his own character flaws) for him to cause the division between Israel and the Philistines which God's people, though they don't recognize it, desperately need. God is starting to save his people by divorcing them from their marriage to their idols and to the world around them.

4. 하나님의 구원역사의 시작 (19-20 절)

이 장의 마지막 구절들은 하나님의 구원역사의 시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다섯 도시중 하나인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삼십 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풀 자들에게 옷을 주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하려는 목적이 아닌, 그의 빚을 갚기 위해 30 명의 블레셋인들을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본문 구절에는 “여호와와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며” “그리하여 그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삼십명을 노략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사자를 찢을 능력을 주셨던 여호와와 신이 지금 삼손에게 블레셋인들을 무찌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고자 했던 경우가 여기 4 절에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비밀계획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이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다루고있는 것은 삼손의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필요로 했던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 삼손에게 필요한 딱 한가지(그의 성격적인 결함외에)-초인적인 힘을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주변의 세상과 그들의 우상들로부터의 결합을 끊으면서 그의 백성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You might think, “If the Lord is saving Israel, what difference can 30 Philistines make?” God promised only that Samson would begin to save Israel from the Philistines (v.5). Here in Ashkelon is the beginning of that beginning. We must not despise it. I have seen the principle operating in the personal situations of God's people. For example, a family receives a huge blow with the sudden death of a spouse or a child. The spouse remaining or the parents of the child are left reeling from grief and plod on in confusion. As weeks and months (and even years) go by, God doesn't close up the gaping wound or take away that dull ache. But the spouse or parents can frequently testify to a small providence or a timely provision, which, though very small, points to God's ongoing care. God's true people always treasure even the smallest of his deliverances and help.

여러분은 아마, “만약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하시면, 30 명의 블레셋인들이 만들 수 있는 차이점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직 삼손이 블레셋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Judges 14:1-20; Matthew 26:31-35)

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5 절). 여기 아스글론에서 그 시작의 초반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멸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원칙이 다뤄지는 걸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에 갑작스런 배우자나 자녀의 죽음을 맞닥드립니다. 남아있는 배우자나 그 자녀의 부모는 혼란가운데 허탈감과 슬픔으로 휘청입니다. 몇주나 몇달(그리고 심지어 몇년)이 지나고도, 하나님은 그 열려진 상처를 덮거나 아픔을 없애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배우자나 자녀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살핌과 때때로 주어지는 그의 섭리와 공급하심을 종종 간증할 수 있습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지어 그의 가장 작은 구조와 도움을 항상 소중히 여깁니다.

Finally we might ask how can God use such flawed people – people like Samson – to get his work done? Shouldn't he only work with people who are good, godly men and women? Shouldn't he only use the people who have the right theology and the right behaviour? The problem with that is that it puts God in a box. It would mean he is limited by humans, and is only able to work when people are being good and making godly choices. It would mean that he works in response to good works, waiting for people to help him to save. David Jackman in his commentary on Judges describes how the book of Judges “shoots holes through all of that”. He says “It is above all a book about grace, undeserved mercy, as is the whole Bible.....That is not to play down theological accuracy or to pretend it doesn't matter how we behave.....(We will still suffer from our sins). But we can rejoice that God is also in the business of using our failures as the foundations for his success. Let us never imagine that we have God taped, or that we know how he will work, or when”. The amazing truth is that God works through sinners, and through sinful situations. He keeps his promises to bless his people in the dark and disastrous periods of our lives, as well as through the times when things are going “right”. Not even our own sin will stop him saving us, or using us. Mysteriously, often unseen, and usually far beyond our understanding, God works through the free (and very often flawed) choices his people make. Indeed we have the assurance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Romans 8:28).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의를 이루시려고-이러한 결점많은 사람들-삼손과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직 신실하고 옳은 사람과 함께 일하셔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오직 옳은 교리를 갖고있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야 하지 않나요? 이것의 문제점은 하나님을 상자안에 가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직 올바르게 신실한 선택을 하는 사람과 일하실 수 있고, 인간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올바른 일에만 응답하시고, 인간이 그가 구원일을 하게끔 돕길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사기의 논평에서 데이비드 잭맨은 사사기서가 얼마나 적재적소 한지를 표현합니다. 그는 “그것은 전체 성경에서 보여지듯이 은혜, 과분한 은총에 관한 책중에 대명사라고 말합니다. 신학 교리의 명확성을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지 않은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우리는 여전히 우리 죄때문에 괴로워 할것 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완벽한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실패를 밑거름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고 언제 또는 어떻게 일하실지 안다고 생각하진 말아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죄많은 상황가운데에서도 죄인들은 통해 일하십니다. 상황이 “잘 풀릴 때”와 우리 인생의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도 또한 하나님은 그의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의 죄가 감히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신비하게도, 종종 보여지지 않는, 그리고 보통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자의적인 선택(아주 종종 미숙한)을 통해 일하십니다. 실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마서 8:28) 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Amen

Prepared by Rev. Grant Lawry, Canterbury Presbyterian Church, Canterbury, Melbourne, Australia for use of the Canterbury congregation.